백두산 신곡중 일부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내그림은 꾸밈없는 삶의 흔적

공간속에 흔적처럼 남을 수많은 線들.

오랫동안 기억 될 나의 추억. 강물 위에 던져버린 지나간 흔적.

망각의 강 너머, 모든 상상은 구애받음이 없다.

보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의 알맹이들이 다시 마음속에서 여과 된다. 그리고 여과되어 화면에서 다양한 표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렇게 펼쳐진 유동적 형상의 이미지들은 나를 항상 긴장시킨다.

그 긴장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늘 나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동양화의 전통적 기법에서 출발한 내 그림의 관심은 우리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회화의 가능성의 모색에 있다.

때문에 화선지나 고운 모시에 수묵의 담담한 표현이나 진채와 농묵의 어우러짐 등 어떠한 기법으로든 나의 삶을 극명하게 표현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나의 조형적 언어로 삼고 싶다. 인간의 삶이 모두 그렇겠지만 그림에 있어서 기법과 재료도 단순한 도구적 성격이 아닌 나의 삶의 모습과 정신이 담아지는 그릇이다. 그림은 조형예술이라는 독특한 영역이지만 삶의 진솔함과 치열함이 모두 녹아든 통합적 리얼리티로서의 예술이다. 더러 욕심을 부린다면 인간 존재에 대한 확신으로서, 그리고 삶과 어우러진 조형의 美로서 꾸미는 그림이 아닌 삶이 영근 결실로서의 흔적이기를 바란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시각의 현실을 뛰어 넘어 존재하는 질서를 추구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이 삶의 과정으로서의 그림이기를 노력할 때, 영혼정화를 위한 기도하는 마음, 정진하는 마음, 영원과 하나되는 길이 보이기도 한다. '慧心타令',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는 마음으로 나는 작업에 임한다.

장상의 〈동양화가〉

폭풍이 지난 들에 핀 꽃 ④·(끝)

주부신행담

힘들어도 항상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고 살았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 놓긴 했어도 나를 에워싼 부처님의 자비를 결코 잊은 적이 없었다

이번에는 회사 어음부도로 인해 빈털털이가 된 사람보다는 어음이서로 조그마한 거라도 건질 수 있는 우리에게 사람들은 벌떼같이 달려들었다. 1억여원이 넘는 어음이서의 결과로 또 한번 낭패를 보게된 것이다.

그 일이 불과 재작년 봄이다. 어음이서로 인한 생활의 빈곤함을 메꾸어 보자고 담보로 내놓은 33평 아파트마저 얼친데 덮친 격으로 아는 사람에게 사기당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매일 울며 밤을 새워야 했던 숱한 나날들이 지금 생각하면 악몽같다. 사채업자의 돈 독촉 등살에 오열을 토했고 전화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는 노이로제에 걸려 사는 것이 그저 짐스럽기만 했다. 남편도 덩달아 야위어 갔고…. 그때의 암담하고 절망적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리고 숨이 막혀 숨을 느낄 정도로 받은 상처가 심하다.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릴 수는 없다. 훌훌 털고 일어서야 했다. 힘들었던 재작년에도 항상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고 살았다. 원망과 불평을 장황하게 늘어 놓기도 했지만 마음은 항상 부처님께 향했었고 부처님을 끝끝히도 사랑했었다. 언제 어디서든 나를 에워싼 부처님의 자비를 결코 잊은 적이 없었다.

신심하나로 일구어낸 오늘의 이 자리, 힘든 고개짓을 무던히도 해보았고 울곤게 사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우리 세식구는 열심히 살고 있다. 아픔이 큰 만큼 그만큼 성숙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재작년을 생애에서 지우개로 지우듯 지우고 싶지만 전생에 갚지 못한 빚, 금생에서 갚은 것이라 위로하며 철저히 혼자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체득했다. 사람은 믿을 게 못된다는 삭막한 생각도 없지 않으나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봄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터득했기 때문이다. 우리 식구는 두다리 뻗고 편하게 잠을 자지만 넘어져서 힘들어 하는 우리를 사기친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중오심을 갖게 되는 이 괴퍽한 사회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힘들고 슬펐던 때, 혼자라고 느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던 주위 분들과 도반들 특히 우리 세식구 곁에서 항상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고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실천불교승가회 효림스님, 자성스님, 일문스님, 법안스님, 토진스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내 생애 잊지 못할 일이 또 하나 있다. 지난해 일어난 '조계종의 봄—개혁'에 동참했던 일이다.

답답하리만치 제자리 걸음이었던 불교에도 종단개혁이라는 새순 돋는 봄이 찾아와 주었다. 종도들의 간절하고 애절한 염원이 없었던들 그리 쉽게 다가올 봄은 아닐진대, 사부대중의 단합과 간절한 서원으로 한국불교의 저력을 과시하기에 넉넉했던 것이다.

나는 전경들과의 격렬한 몸싸움, 공권력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된 총무원 청사, 연일 봄으로 보도되는 불교뉴스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급기야는 시위대에 동참했다. 조계사에서, 광화문 네거리에서 '비폭력'을 외치며 직·간접적으로 불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조그만 몸을 투자해 동참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남이 한다고 덩달아 동참한 것도 아니다. 불교를 지켜야겠다는 신념 하나만으로 나를 역사의 현장으로 이끌어 내기에 충분했다. 연속되는 절박한 사태에 동참했던 일은 시간이 흐르면서 내 생애에 소중하고 값진 추억의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다.

파주 고령산 보광사 종무실에서 근무하게 된 지도 벌써 8개월이 지나고 있다. 보광사는 실천불교승가회 근본도량으로서 하루가 다르게 새 모습을 갖추고 있다.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부처님께 삼배의 예를 올린다. "항상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하고 기도올리며 "사람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맞이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지금은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 건강해야 평생토록 부처님 일을 할 수 있기에 건강에 늘 유념하고 있다.

우리 식구가 봄을 봄으로 보지 못하고 힘들고 지쳐있을 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신 어느 스님이 계시다. 신행담을 마감하며 그분이 내게 써 주신 글귀를 소개한다.

"폭풍이 지난 들 위에도
꽃은 피고,
지진에 무너진 땅에서도
맑은 샘은 솟아 오른다.
힘내세요, 보살님!"

김 묘명심 〈파주 보광사〉

영어로 배우는 경전 — 숫타니파타 ②

♦ He who has not found any essence in the existences, like one that looks for flowers on fig-trees, that Bhikkhu leaves this and the further shore, as a snake quits its old worn out skin.

무화과나무에서 꽃을 찾는 사람처럼(꽃을 찾을 수 없듯), 존재에서 본질을 찾지 않는 수행자는 차안과 피안을 떠난다, 뱀이 제 낡은 허물을 벗듯.

♦ He in whose breast there are no feelings of anger, who has thus overcome reiterated existence, that Bhikkhu leaves this and the further shore, as a snake quits its old worn out skin.

가슴 속에 성냄이 없고 되풀이되는 삶을 극복한 수행자는 차안과 피안을 떠난다, 뱀이 제 낡은 허물을 벗듯.

♦ He whose doubts are scattered, cut off entirely inwardly, that Bhikkhu leaves this and the further shore, as a snake quits its old worn out skin.

의심을 물리쳐 끊어서 완전히 내면을 향한 수행자는 차안과 피안을 떠난다, 뱀이 제 낡은 허물을 벗듯.

♦ He who did not go too fast forward, nor was left behind, who overcame all this world of delusion, that Bhikkhu leaves this and the further shore, as a snake quits its old worn out skin.

앞으로 너무 빨리 가지도, 뒤처지지도 않고 이 세계의 미혹을 모두 이겨낸 수행자는 차안과 피안을 떠난다, 뱀이 제 낡은 허물을 벗듯.

♦ He who did not go too fast forward, nor was left behind, having seen that all this in the world is false, that Bhikkhu leaves this and the further shore, as a snake quits its old worn out skin.

앞으로 너무 빨리 가지도, 뒤처지지도 않고 세상의 이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아는 수행자는 차안과 피안을 떠난다, 뱀이 제 낡은 허물을 벗듯.

한명우 기자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화려했던 낮만큼이나 소중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으로 다가서는 이름—그랜드
우아한 분위기,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늘 사랑이 넘치는 공간! 그랜드로 오십시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침대전문 회사 — 2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한길만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좋은 품질, 편안한 가격 — 국내에서 유일하게 건제품에 25mm 강신을 사용한 하트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 매트리스 사용 —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력을 바로 전달 수 있으며, 수명이 2.5배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다양한 모델 —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GRAND FANTASIA

꿈의 나래를 편다
그랜드침대
• 본사: 경기도 고양시 향동동 267-18
• 전화: (02)308-1818-9, 303-7376, 372-7941
품질보증

DU PONT

21세기의 시각 —
듀폰의 눈은 깊고 넓습니다.

200여 년 듀폰의 역사가
바로 첨단 기술의 역사입니다.

1802년 시작된 듀폰 200여 년의 기업 역사에는
혁신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1903년 세계 최초로 민간 연구소 설립,
1938년 꿈의 섬유 나일론 개발 등,
현재 22개국 70여 개 연구소를 통해
기초 생명과학에서
섬유, 화학, 농업, 전자, 에너지,
자동차, 항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의 역사를 만들어 온 듀폰은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종합 화학회사로서
그 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듀폰은
건강한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지구촌 어느 곳에서든지
안전, 환경 및 윤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터득하여,
오늘도 이를 기업 정신으로 이어받아
성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과학적으로 —
듀폰의 21세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800여 종의
우수한 산업용 소재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듀폰은
고객과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남다른 파트너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이 최고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고객 최고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5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듀폰은
이천 및 울산 단지의 공장을 통해
국내 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함은 물론,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의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보다 좋은 제품을 추구하는 듀폰 —
21세기의 시각으로 세계를 만들어가는
듀폰의 눈은 깊고 넓습니다.

한국 듀폰
⊕135-082
서울 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6번지 이레아 타워 4-5층